

[실무수습기-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한 2주간의 테마여행

### 류 정 선

- 1980년 9월 생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 (前) 제일광장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 I. 들어가며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 나는 2012년 공감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생 10명 중에서 공익·인권에 관한 지식이나 활동경력 면에서 평균 이하에 속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감 염형국 변호사님의 권유(?), 아쉬움은 남지만 진정성을 갖고 실무수습에 임하였다는 나름의 떳떳함, 그리고 실무수습 종료 후에도 엠티를 함께 갈 정도로 가까워진 로스쿨 실무수습생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이 실무수습기를 써 보게 되었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실무수습기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곳이 '공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공감은 다른 실무수습기관과는 달리 '남들보다 잘 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가 아닌 '각자의 수준에서 모두 함께 배우고 느끼자.'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 II.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의 첫 만남

### 1. 공감 소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으로, ①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 확장, ②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③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지향으로 삼는 단체이다.

공감의 활동분야는 여성인권, 장애인권,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인권, 취약 계층노동, 성소수자, 공익법 일반, 공익법 교육·증개 등을 망라한다. 법률서비스로는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헌법소송, 민·형사소송에서 입법자문에 이르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공감 인권법캠프 및 대외협력을 통한 공익·인권관련 교육·회의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 공익·인권법 활동의 토양이 아직 성숙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감은 법률 선진국의 공익변호사그룹과 같이 공익·인권법 내에서도 분야별 전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공감은 마치 법률구조공단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겪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공감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지향점 및 인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그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는 사건을 선별하여 수임하고 있다.

현재 공감은 8명의 변호사님과 2명의 실장님, 그리고 20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인턴(6개월) 및 10명이 함께 근무하는 로스쿨 실무수습생(2주)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공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pil.org> 또는 블로그 <http://withgonggam.tistory.com/>에 들러 보시기를!).

### 2. 공감의 첫 인상

공감은 서울 종로구 창덕궁 언저리의 북촌창우극장이라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복도에 층마다 작은 남녀공용 화장실 1개씩이 있는 다소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지만, 공감 사무실 안에서는 ‘따뜻함’이 ‘허름함’을 압도함을 쉬이 느낄 수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면, 벽면에 가득한 공감 인턴들의 사진과 거기에 몇 줄씩 적힌 소감 내지 추억들, 작은 나무에 열매처럼 걸려있는 사람들의 명함, 기부자 명단 등을 몇 걸음 안에 마주할 수 있다. 사무실 중앙의 회의실(10명 규모)과 입구 사이에서는 10명의 인턴 또는 실무수습생들이 5개씩 서로 마주보게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를 하고, 사무실 양쪽 창가에서는 2명의 실장님과 8명의 변호사님들이 파

티션으로 구분된 동일한 크기의 공간에서 근무를 한다. 대형로펌 두 곳에서만 실무수습을 해 보았던 나로서는, 변호사와 직원이 업무공간과 프로필 소개 등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점과, 실무수습생들도 격리된 인턴실이 아닌 그분들의 목소리가 바로 들리는 곳에서 일하면서 직접 전화응대까지 한다는 점이 다소 놀라웠다. 공감 구성원들 사이에서, '업무내용이나 근무기간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이 공유되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감의 구성원 중 적어도 내가 보았던 분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인상이나 말투에서 따뜻함과 진실됨이 묻어 나왔다. 그래서였을까, 특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외모와 몇 마디 말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게 되듯이 나는 공감 구성원 분들에 대한 인간적인 끌림을 막기 어려웠다.

### III. 공감 실무수습생들의 지원동기

#### 1. 나의 지원동기

고려대 로스쿨에서는 공감이 자체선발기관이 아닌 학교추천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감 한 곳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는 없었지만(최대 5개의 기관에 지원하면서 공통양식의 지원 서류 하나만을 제출할 수 있음.), 여기서는 내가 학교에 제출한 실무수습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 부분을 인용해 보겠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고 '생각만' 한 사람, 여기에 잡들다." (김두식, '헌법의 풍경')*

만일 제가 오늘 죽는다면, 제 묘비에는 이런 비문(碑文)이 새겨질지도 모릅니다. 승자독식의 양극화된 세상보다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누구 못지않게 갈망하지만, 경쟁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살다보면 공익·봉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부채의식(負債意識)을 가지고 이번 실무수습을 법원·검찰·로펌·기업이 아닌 공익관련단체에서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공익·봉사에 있어서 게으르고 용기가 없던 저에게 자극을 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가까운 또는 먼 미래에 공익변호사로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2011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에 임하고자 합니다.

## 2. 다른 실무수습생들의 지원동기

2011년 공감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에 참여한 실무수습생들은 고려대(2기 류정선), 부산대(3기 최문석), 서울대(3기 안희철), 성균관대(3기 김인희), 원광대(2기 안영진), 이화여대(2기 신병주), 전남대(2기 명현호), 전북대(3기 전주연), 한양대(3기 김우경),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3학년 주기영, 1개월)(원래는 연세대 1명이 오기로 되어 있었음) 등 총 10개교에서 1명씩 선발되었다.

현재 공감은 공간적인 문제로 실무수습생을 최대 10명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교들과 실무수습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이들 중 몇 명의 지원동기를 요약하여 소개하겠다.

*‘로스쿨 인권법연구회에서 초청한 공감 박영아 변호사님의 강연을 계기로 진보적 법률가라는 추상적 목표를 구체적 목표로 전환하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김우경)*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이주노동·아동청소년폭력 등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공익 분야에 대한 건문을 넓히고 인권감수성을 키우고 싶어서’ (김인희)*

*‘로스쿨 공익클리닉 수업을 통해 난민소송·부당해고취소소송 등에 참여하면서 공익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감을 체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병주)*

*‘복지관에서 일하고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활동을 하던 중 정치색이 적으면서도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익단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안영진)*

*‘인권법캠프로 공감을 알게 된 후 시(市) 다문화가정센터의 이주여성 법률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현장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주연)*

*‘인권변호사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자본주의사회에서 굳이 공익·인권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주기영)*

## IV. 공감에서의 실무수습 활동

### 1. 전체적인 구성

프로그램(2주)을 기준으로 보면, 2012년 1월 공감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은 크게 1) 세미나, 2) 과제, 3) 법정방청, 4) 외부단체방문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미나에는 첫 날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매일 오전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할당되었는데, 그날의 주제에 대한 변호사님의 설명과 그에 대한 실무수습생들의 자유로운 질문·답변 및 열띤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과제는 실무수습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배정된 지도변호사님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아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주로 지도변호사 수행사건에 관한 리서치(국내의 법령·판례 검색 등), 서면작성(의견서·소장·준비서면·항소이유서 등)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사건 법정방청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등 외부단체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실무수습생의 일과(1일)를 기준으로 보면, 1) 매일 오전 10:00에 출근하여 10:30부터 12:00까지(실제로는 12:15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음.) 세미나에 참여하고, 2) 13:30 정도까지 점심식사를 하고(밥값은 각자내기가 원칙!), 3) 오후에는 각자의 과제 또는 법정방청·외부단체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하고,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00에 모두 함께 퇴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 동기들은 신기할 정도로 빨리 친해져서 (갈)퇴근 후 함께 불링을 친다거나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감’ 활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한다.

## 2. 세미나

총 8회의 세미나는 각 난민인권(박영아 변호사님), 장애인권(염형국 변호사님), 이주인권(정정훈 변호사님), 여성인권(소라미 변호사님), HIV감염인인권(정정훈 변호사님), 성소수자인권(장서연 변호사님), 취약계층노동(윤지영 변호사님), 빈곤·복지인권(차혜령 변호사님)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로스쿨 내 공익·인권법학회 활동조차 하지 못했던 내게는 생소한 내용도 많았지만, 담당 변호사님들이 초심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덕분에 단 하나의 세미나도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면관계상 모든 세미나를 대충 소개하는 것보다는 몇 개의 세미나라도 조금은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 중에서 여성인권 세미나와 빈곤·복지인권 세미나 2개 정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여성인권 세미나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관련 법적쟁점’에 관한 내용으로 소라미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다. 세미나는 대전고등법원 2008.1.23. 선고 2007노425 판결(일명 ‘베트남 신부 살해 사건’)의 판결문을 돌아가며 읽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유 부분에는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날 남편인 피고인에게 남긴 편지가 인용되어 있다. 가난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던 피해자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한국에 오게 된 과정, 당시 19세였던 피해자가 40대 남편의 좋은 아내가 되어 보고자 기울었던 많은 노력, 오히려 그에 폭력으로 답하던 남편에 대한 실망

과 한(恨)이 생생히 전해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목소리가 떨려움을 느낄 수 있었고, 맞은 편 실무수습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대평가와 학점경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로스쿨이지만, '자기 일도 아닌 일에' 함께 슬퍼하는 실무수습생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아직 가슴이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22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제결혼 현황, 중개업체에 의한 국제결혼의 실태, 관련법령, 결혼이주여성의 거주권 및 성원권(成員權) 문제 등을 배웠다.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하게 안착한 다문화가정도 많겠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여성의 외모만을 보고 물건 고르듯이 3차에 이르는 심사를 하여 단 하루 만에 혼인을 결정하게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영업' 방식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필리핀의 '우편주문신부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등 외국의 입법례, 우리나라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한계를 배우면서, 로스쿨에서는 사법(司法)에 다소 치우친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입법이나 행정 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빈곤·복지인권 세미나는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공익소송과 사법적극주의'를 내용으로 차혜령 변호사님이 진행하셨는데, 그 중 하나의 소재에 관한 토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바람에 준비된 13쪽 분량 프린트의 상당부분은 훑는 정도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사회권 및 사법적극주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를 금지한 것에 대한 실무수습생 각자의 생각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실무수습생들은 일단 민법의 관점에서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홈리스(homeless) 입장에서 (국가 또는 사인에 대한) 주거권·생명권·사회적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겠다는 점, 한국철도공사가 야간노숙행위를 금지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차별이라는 점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대화의 영역을 넓혀 갔다. 이야기는 '국가가 제공한 홈리스 시설에서의 생활을 거부하고 서울역 노숙을 선택할 자유가 인정되는지' 등에까지 확장되었는데, 열정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실무수습생들과 그것을 능숙하게 이끌어 가는 변호사님께서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지면의 제한과 나의 글 솜씨 부족으로 세미나의 진지하면서도 뜨거운 분위기를 온전히 전하지 못함이 아쉽지만, 공감의 세미나는 많은 실무수습생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으로 꼽을 정도로 내용도 알차고 강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 3. 과제

나는 자기소개서에 노동·분배·불평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썼기 때문에, 취약계층노동을 담당하는 윤지영 지도변호사님으로부터 과제를 받게 되었다. 주어진 과제는 모 국가기관의 차별정년규정에 따라 퇴직한 여성에 관한 사건이었는데, 형식적으로는 정년이 직렬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직렬이 전원 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성차별이 아닌지가 문제되는 것이었다.

나는 먼저 헌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를 조사했고, 변호사님의 요청에 따라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변호사님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추가적 사실관계를 내게 전달해 주시면서 승소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정도면 해볼 만 하다고 판단했기에 소장 작성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막상 소장을 쓰려고 하니, 헌법소원·행정소송·민사소송·(노동위원회)구제절차 중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해고무효확인·공무원지위확인·면직처분취소·취업규칙 변경 등 중에서 무엇을 청구할 것인지, 피고는 대한민국인지 해당 국가기관의 장(長)인지, 청구취지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등 더 조사해야 할 것이 많았다. 나는 추가적인 리서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공무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고, 13장 분량의 소장을 2주 만에 겨우 완성하였다.

나는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데에다 조퇴를 한 날이 있을 정도로 첫 1주 내내 몸이 좋지 않아서 변호사님이 과제를 적게 주셨는데, 다른 실무수습생들은 평균적으로 나보다 1.5배 이상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해매는 과정을 통해 ‘생소한 분야의 사건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작게나마 공익·인권 관련 행정소송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았다는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다.

다른 실무수습생들이 수행한 과제 중 일부를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어떤 사유로 기각된 자가 다른 사유로 다시 난민지위인정신청을 한 경우의 난민지위 인정가능성 검토’ 및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조치 및 강제퇴거조치 조항의 위헌성 검토’ (김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등의 위헌여부 검토(평등권 관련)’ (명현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진정서 작성’ (신병주)  
‘지적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적용요건 및 한계에 관한 항소이유서 작성’ (안정진)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리서치’ 및 ‘역물한 옥살이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안희철)  
‘기독교인인 파키스탄인의 난민자격거부 취소소송에 관한 리서치’ 및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의 19세미만 관람불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리서치' (전수연)

'장애인단체집회 지원차량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작성', '수감자 인권관련 의견서 작성' 및 'NGO 홈페이지 기사체제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리서치' (최문석)

#### 4. 법정방청

우리가 방청하러 간 사건은, 공감의 모 변호사님이 서울지방법용노동청에 정보 공개청구를 한 것이 거절(정보공개거부처분)되었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제2회 기일이었다. 변호사님이 대리인이 아닌 원고로서 직접 변론하게 된 사건이었고 재판부도 본인소송을 하는 원고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여, 재미있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허무하게도 피고 측 불출석으로 이 사건의 변론은 볼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나마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진행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 5. 외부단체 탐방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하, '발바닥'이라고 한다.)(<http://www.footact.org/>),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의 장애인권 관련단체를 방문하였다. 이들 8개 단체는 복도와 파티션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 사실상 같은 빌딩의 같은 층을 한 식구처럼 함께 이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각 단체의 간략한 소개를 듣고, 발바닥 활동가분들로부터 시설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들었다.

이어서 탈(脫)시설을 주제로 한 인권영상 '선철규의 자립이야기-지렁이 꿈틀'을 보았다. 이 영상은 휠체어조차 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12년을 지낸 선철규씨가 시설에서 벗어나 지내는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정하는 2010 인권영상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힘겨운 호흡이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철규씨의 영상을 보면서, 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장애인에게 외부와 단절된 '연명'에 가까운 무의미한 삶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지금 내가 당연한 듯 누리는 '바깥세상에서의 삶'이 시설장애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경험해 보고 싶은 꿈'이라는 것에 대한 슬픔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함을 느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장애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은 단지 그 확률이 '실현'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선가 읽었던 '장애사회는 있어도



장애인은 없다.’는 취지의 글귀가 떠올랐다. 장애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평등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은 어려운 우리 사회가, 그리고 돈을 거의 포기하고 일하는 이곳 활동가분들 앞에서 (대출로 버티고는 있지만) 수천만 원을 내며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인권현장 일선에 당장 뛰어들기를 망설이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 V. 마치며

돌이켜 보건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은 한 마디로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한 2주간의 테마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감을 통해서 2주 동안 공익·인권을 ‘테마’로 난민·이주·HIV감염인·성소수자인권 등 다양한 ‘여행지’를 다녀볼 수 있었고, 여행 내내 아마도 머리보다는 가슴에 가까운 곳에서 ‘인권감수성’이라는 울림을 느꼈다는 점이 이 여행을 가장 기억에 남게 할 것 같기 때문이다(인권이 문제되는 현장은 여행지보다는 전쟁터에 가까운 것이지만, 모든 여행이 가벼운 즐거움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과 오랜만에 학교를 벗어나 겪었던 공감에서의 2주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점에서 이 표현을 써 보았음).

공감은 국내 이 분야의 선구자로서 이미 공익·인권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공감의 구성원들은 이곳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가져다 줄 다른 직장에 갈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보람 하나로 이 길을 걷고 계신 존경스러운 분들이다(주기영 군은 ‘특별한 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분들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했는데, 양립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함). 사실 공감이 수입의뢰를 받는 사건 중 상당히 적은 수만을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의 한계, 더 근본적으로는 제정의 한계 때문인데, 이는 공익관련단체의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설령 공감에서 직접 일할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원이 생기는 대로 약간의 돈이라도 기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지막으로, 공익·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감을 적어도 한 번은 만나고 느껴볼 것을 추천한다. 공감은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턴(6개월), 로스쿨 실무수습(2주), 인권법캠프(3일) 등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있다. 공감은 나처럼 공익·인권에 ‘관심만’ 있던 게으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니,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가슴이 움직이는 분이라면 용기를 내어 공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 보시라.